

총련대표단 성원들의 소원을 헤아리시어

여기에 제일동포들을 위 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것 못 할 이야기가 있다.

1988년 8월 하순 어느 날 조국에 머무르고 있던 제10차 제일조선청년학생 대표단과 혁명력사교원대표단 성원들은 자기들이 이제 며칠후에 조국을 떠나기로 되어있는데 출발날 자를 좀 늦추어 공화국창건 40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총련과 해외동포들뿐 아니라 경축행사에 참가할 수 많은 외국의 대표단들

이 편이어서 도착하게 되는 조건에서 숙식조건과 수송수단을 비롯하여 결리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때문에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일군에게 두 대표단의 인원이 모두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었다.

100명에 가깝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그들이 공화국창건 40돐 경축행사에 참가시켜줄것을 열렬히 희망하면 그 소원을 실현시켜주어야 하겠다고, 해당

일군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대로 그들의 행사참가문제를 꼭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두 대표단의 행사참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그 일군의 뇌리에는 불현듯 어느새 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을 방문할때를 예정보다 앞당겨 열도록 하여주시는 일이 떠올랐다.

그때 총련교육일군대표단이 전국교육일군대회에 참가하여 열려기 전에 떠나는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이 얼마나 설심해하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의 대회에 그들을 꼭 참가시켜야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방문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어려울것이라고, 대외날자를 앞당기자고, 우리가 좀 수고를 하더라도 총련교육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해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게 하고 조국의 교육일군들의 우수한 경험도 듣게 하여주시고, 대회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에 다 참가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대회를 앞당겨 열도록 하자고 뜨겁게 교시 하시었다.

그리고 관계부서 일군들을 찾으시어 몹소 필요

한 대책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그때 전국교육일군대회는 예정보다 앞당겨 열리게 되었으며 출발날자가 얼마 남지 않았던 총련교육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때 대표단성원들뿐 아니라 회합한 소식을 전해들은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또 얼마나 크나큰 감격에 휩싸였던지 모른다.

그런데 또다른 소망마저 헤아리시어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주시였으니 진정한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정화였다.

절세위인들과 총련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제61(1972)년 8월 18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방문한 총련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날이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의 음악무용소조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뜻깊은 담화를 나누시였으며 그들 모두에게 대를 두고 같이 전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어마한 총련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에서 역사의 그날을 되새기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기모임이 진행되었다.

결기모임에는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교직원들과 제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결기모임에서는 지난 50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나날에 이룩된 자랑

찬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남다른 자랑을 안고있는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학생들께서 공부도 잘하고 문예활동과 체육활동에서도 으뜸가는 자랑많은 학교로 꾸러나갈것을 결의하고 뜻깊은 올해를 민족교육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결정적인 해로 장식하기 위한 《100일강건신문동

을 힘있게 벌린데 대하여 토로하였다.

이 기간 학교 소년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모든 학생들이 당시 조국 방문한 학생들이 지은 노래 《조국을 떠나보내는 노래》에 대한 보급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조국의 뜻깊은 상봉모임도 조직하였다.

최진옥

또한 교직원들이 조직한 《조국사랑발표모임》도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조국으로부터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을 되돌려보면서 후대교육을 책임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었다.

결기모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영광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 가려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의로 하여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최진옥

그날의 영광 가슴에 안고

어마한 총련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에서 역사의 그날을 되새기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기모임이 진행되었다.

결기모임에는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교직원들과 제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결기모임에서는 지난 50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나날에 이룩된 자랑

찬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남다른 자랑을 안고있는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학생들께서 공부도 잘하고 문예활동과 체육활동에서도 으뜸가는 자랑많은 학교로 꾸러나갈것을 결의하고 뜻깊은 올해를 민족교육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결정적인 해로 장식하기 위한 《100일강건신문동

을 힘있게 벌린데 대하여 토로하였다.

이 기간 학교 소년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모든 학생들이 당시 조국 방문한 학생들이 지은 노래 《조국을 떠나보내는 노래》에 대한 보급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조국의 뜻깊은 상봉모임도 조직하였다.

최진옥

또한 교직원들이 조직한 《조국사랑발표모임》도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조국으로부터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을 되돌려보면서 후대교육을 책임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었다.

결기모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영광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 가려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의로 하여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최진옥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품에서 참된 조국과 음악의 길을 알게 된 윤이상선생은 생의 말년까지 민족을 위한 애국의 한결같은 뜻을 이어갔다.

주제79(1990)년 10월 어느 날 아버지수령님께서 윤이상선생을 만나주시고 그가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범민족통일음악회를 맡기시고 그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음악회가 큰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힘쓰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그의 수고를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선생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시었다.

오찬상에서 그이께서는 윤이상선생은 우리 민족이 아끼는 재간동이며 선생처럼 예술분야에서 귀한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건강관리를 잘하여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꼭 보답하리라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되뇌어왔다.

선생은 그 맹세를 지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음악작품 창작에 자기의 심혼을 다 바치었다.

선생의 이러한 애국활동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늘 선생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보약까지 보내주시였을뿐 아니라 그들부부

가 조국에 와서 마음편히 생활할수 있도록 대동강반의 경치좋은 곳에 고급주택도 마련하여주시었다. 또 선생의 생일 75돐을 맞으며 평양의 증심부여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윤이상음악

곡 《광주여 영원히》를 특음으로 들어주시고 특색있는 민족적선율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음악속에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바라는 작곡가의 사상감정이 잘 반영되었다고 하시면서 음악회를 성료적으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기에 윤이상선생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의로운 활동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칠수 있었다.

선생은 자기가 고집병으로

윤이상선생을 추모하는 49세 (불교식제사)때에는 도이쉴란드에 조의대표단을 파견해주시고 제상에 놓을 제물까지 보내주시였으며 선생의 미망인이 이국땅에서 적절하게 지내고있는 데 대해 격정하여 조국에 와서 장기간 건강을 돌볼데 대한 은정도 돌려주시었다.

윤이상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날도 조국에서는 윤이상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32차 윤이상음악회때에는 제2차 윤이상선생의 진행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품에서 윤이상선생은 오늘날 거리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겨레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4)

당을 새로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제83(1994)년 어느 봄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풍치수려한 묘향산에서 조국을 방문한 윤이상선생을 만나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윤이상선생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1982년 평양에서 제1차 윤이상음악회가 진행될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윤이상선생이 작곡한 교향시

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관록있는 국립교향악단에 그 작품연주를 맡기시고 특독한 곡상요구에 따르는 수석중의 타악기를 일식으로 마련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고는 공영을 TV로 방영하고 이를 있는 평론가들의 평판도 신문에 내도록 해주시었다.

민족적정서와 색채가 짙은 선생의 음악을 발굴소개하는 사업에도 힘을 낼도록 하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생의 기여에서조차 회미해 진 초기의 음악들을 찾아주시어 제2차 윤이상음악회에서는 다시 빛을 보게 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 나라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 부작에 출연하 《민족과 운명》을 만들 때에도 그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이렇듯 평생을 두고도 갖지 못할 위대한

오래 살지 못할것이라는것을 애감한 속에서도 1994년에 교향시곡 《화염속의 천사》를 작곡하였다.

1995년 11월 4일, 윤이상선생은 파란 많은 자기의 인생길에서 대대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신문들에 그의 부고를 크게 게재 하고 거기에 윤이상선생의 생애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한결 같았다는것을 강조하게 하시었다. 또한 윤이상선생을 추모하는 행사를 크게 조직하도록 하시고 화환도 보내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생의 공적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어 윤이상음악당에 윤이상박물관을 꾸리고 그의 반신상도 세우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윤이상선생을 추모하는 49세 (불교식제사)때에는 도이쉴란드에 조의대표단을 파견해주시고 제상에 놓을 제물까지 보내주시였으며 선생의 미망인이 이국땅에서 적절하게 지내고있는 데 대해 격정하여 조국에 와서 장기간 건강을 돌볼데 대한 은정도 돌려주시었다.

윤이상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날도 조국에서는 윤이상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32차 윤이상음악회때에는 제2차 윤이상선생의 진행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품에서 윤이상선생은 오늘날 거리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본사기자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며 (4)

관문점사건으로 또다시 숙위를 양한 미국

1976년 8월 18일 오전, 갑자기 미군경비장교를 비롯한 10여명의 인원들이 대화화물차와 쫓차를 몰고와 쌍방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수 없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의 나무를 제멋대로 찍기 시작했다.

당시 근무중이던 조선인민군 경비인원들이 비비행기를 당장 그만둘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군것들과 그들을 따라온 밀지자들은 흥기를 휘두르며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민군 경비인원들은 절들의 분별없는 도발에 대처하여 부들부들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수 없게 되었다. 경비인원들은 절들이 던진 도끼를 집어 도로 놈들에게 던지면

서 결사적으로 대항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절들은 미리 대기시켜놓았던 30여명의 완전전투태세에 들어가도록 하는 한편 배상금을 내라 하니, 사죄하라니 하면서 공화국을 위협할것을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미국의 이러한 엄중한 군사적도발행동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군부대들과 노동적위대(당시), 붉은청년군위대원들이 전투태세에 들어갈때 대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안고 전당, 전군, 전민이 조국수호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의 열렬의 기상에 질겁한 미국은 종당에 공화국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본사기자 리연선

주제65(1976)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을 방문한 일본군지리에서 판문점사건은 미국대통령이 얼마나 너털하게 행동하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미국이라는 큰 나라 대통령이 납조선군경 점을 정당화하고 대통령선정 전체 인민군부대들과 노동적위대(당시), 붉은청년군위대원들이 전투태세에 들어갈때 대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안고 전당, 전군, 전민이 조국수호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의 열렬의 기상에 질겁한 미국은 종당에 공화국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본사기자 리연선

주제65(1976)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을 방문한 일본군지리에서 판문점사건은 미국대통령이 얼마나 너털하게 행동하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미국이라는 큰 나라 대통령이 납조선군경 점을 정당화하고 대통령선정 전체 인민군부대들과 노동적위대(당시), 붉은청년군위대원들이 전투태세에 들어갈때 대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안고 전당, 전군, 전민이 조국수호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의 열렬의 기상에 질겁한 미국은 종당에 공화국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본사기자 리연선

《세계화》바람에 말살되어가는 민족음악

매개 민족이 자기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민족적정서를 반영하여 창조한 음악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세련공고화되면서 고유한 민족적정통을 이룬다.

해당 민족에게 고유한 음악을 민족음악이라고 한다.

민족음악에서 그 민족의 심리정서적특질과 생활감정을 가장 풍부하게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는 대표적 민족 음악은 인민대중자신이 창작하고 즐겨 불리는 민요이다.

우리 민족음악의 대표적인 민요로는 《아리랑》을 들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민족성을 살리면서도 시대적발전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음악분야에서도 민족전통을 고수해나가고있다.

하지만 납조선에서는 《세계화》바람속에 우리 민족고유의 선율과 창법이 사라지고 민족음악의 전통이 여지없이 파괴되고있다.

1990년대이후를, 녀청소년중창단이 미국과 서방의 색어빠진 문화를 어지럽게 조합하여 만든 《대중음악》이라는것으로 하여 민족전통음악은 《지구무로고리》라 불리는것만 보아도 평판적이고 혐기적인 춤동작과 반복적인 리듬에 맞추어 가사를 읊듯이 하는 음악으로서 관람자들의 시각, 청각을 자극한다.

그 《대중음악》은 혼합적이고 어지러우며 평판적인것으로 하여 각이한 연령층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있다.

가사만 보아도 빠른 노래말, 외래어가 섞인 잠랑말인 데다 강한 리듬에 무음조에 가까운 음물에 따라하는것으로 하여 민족음악, 서정적이고 민족음악의 전통이 여지없이 파괴되고있다.

1990년대이후를, 녀청소년중창단이 미국과 서방의 색어빠진 문화를 어지럽게 조합하여 만든 《대중음악》이라는것으로 하여 민족전통음악은 《지구무로고리》라 불리는것만 보아도 평판적이고 혐기적인 춤동작과 반복적인 리듬에 맞추어 가사를 읊듯이 하는 음악으로서 관람자들의 시각, 청각을 자극한다.

그 《대중음악》은 혼합적이고 어지러우며 평판적인것으로 하여 각이한 연령층의

《아리랑》, 《패지나 청청나네》, 《용해아》와 같은 민요, 민족음악에 《자즈》, 《랩》과 같은 평판적인 리듬, 음물에 마구 뒤섞여놓는가 하면 서양음악과 장단에 창소리를 몇마디 섞어놓고 《남조선식자즈》라고 광고해대는 형편이다.

하기에 납조선 국제음악에서는 대중음악이 서양식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다양성, 민족의 본래를 잃고있다. 민족음악이 《세계화》바람에 말살되어가고있다. 민족성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을 마구 결합한 얼치기음악을 내놓아 민족음악의 고유한 전통이 여지없이 말살되고있다.

김광복

